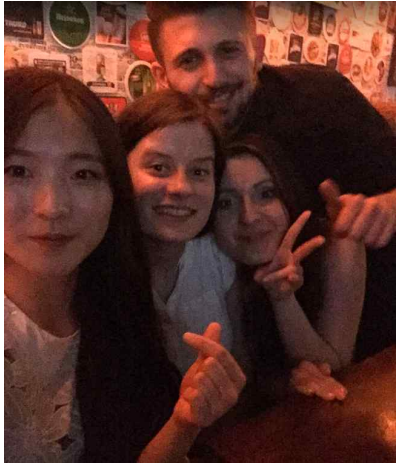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소재디자인공학과	학 번	201**266	성 명	조유민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리투아니아	파견대학	빌니우스 공과대학교	파견학기	1학기
소요경비	통신사비 7천원+기숙사비 20만원+교통비(버스) 6천원 + 식생활비 및 기타 생활비 = 한 달 기준 약 45만원				
주거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였으며, 본 캠퍼스 옆에 위치하고 있어 수업에 지장이 없었고, 친한 친구들 역시 기숙사 생활을 해서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 이탈리아 친구들의 피자 대접				
룸메이트	같이 사는 생활은 외국인들과 살 경우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는 주변의 경험담을 수용해 한국인친구와 살았습니다. 타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룸메이트가 있어서 아마 생활을 막막하지 않게 더 잘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기숙사는 식사가 제공 되지 않아 음식을 해먹어야 했는데, 부엌을 옆방과 같이 공유하며 쓸 수 있어 키친 메이트도 있어 아침에 눈뜨자마자 "GOOD MORNING!" 아침인사부터 자기 전에 하는 "GOOD NIGHT!"을 말하면서 자주 왕래했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같이 사는 기분도 낼 수 있었습니다. 저의 키친메이트가 제가 떠날 때 쯤 저의 초상화도 그려주고 싶다며 완성본을 보여주었는데 충격을 먹기도 했습니다. (앞머리만 닮았습니다..)				

	▲ 키친메이트의 초상화 ▲한국인 룸메이트&키친메이트와의 식사
기숙사 내 한국인	리투아니아는 동양인 자체가 많이 없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타이완, 한국 이렇게 두 나라가 다였습니다. 기숙사전체 내 한국인은 3명이었는데 처음 도착했을 때는 아직 외국인 친구랑은 낯설 당시 기숙사내 한국인들과 같이 생일 파티도 하고 놀면서 초기 생활에 적응을 해나가다가 생활 중반쯤에는 다들 적응하다보니 외국인친구들과도 어려움 없이 같이 놀았습니다.
파견대학 정보	제가 다녔던 빌니우스의 VGTU 대학교는 수도 빌뉴스에 위치한 대학으로, 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강의실, 화장실, 기숙사 등은 깨끗합니다. 또한 수업방식이나 교수님들도 일반학생과 교환학생을 분류해 교환학생들의 상황이나 처지에 맞게 잘 편성되어 있습니다.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VGTU대학은 그들만의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인데, 그 중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ESN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본교의 국제교류도우미와 비슷한 역할로 교환학생으로 오는 학생들이 현지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현지학생과 교환학생을 연결 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ESN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주최하여 여러 활동을 하게 되는데, 주변 유럽국을 가거나 리투아니아 내에서 다른 도시를 다 같이 여행을 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알찬 행사들과 저의 멘토 덕분에 리투아니아 생활을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말 및 여가활동	주말이나 여가시간에는 외국인 친구들과 항상 모여서 놀았지만 제가 타지임에도 불구하고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친구들도 만나서 놀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투아니아에 입국하고 얼마 되지 않아 설날을 맞이하였는데, 한국인 친구들과 모여 떡국도 해먹고 윷놀이 등 뜻 깊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 외에는 저와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 같이 놀았으며, 한국인 저 포함 각국 친구들과 10명 정도 다 같이 자주 놀았습니다. 주말이나 학교가 끝나면 시내에 가서 간단한 맥주 한잔씩 하거나, 각 나라의 공휴일을 맞이하면 음식을 같이하거나 파티를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 서로의 우정도 더 돈독해질 수 있었고, 아직도 연락을 유지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저의 멘토는 리투아니아 현지인 MONIKA였습니다. 멘토-멘티 활동을 잘 하지 않은 친구도 있었지만 저의 멘토는 저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주었습니다. 처음 입국부터 출국까지 저에 대해 관심을 항상 보였으며, 저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저의 멘토는 영어도 월등이 잘하던 친구라, 첫 만남부터 몇 일간은 영어도 다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한 두달이 지나니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만큼 제 실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이 친구에게 가장 고맙고, 이 빛을 어떻게 갚아주나 했던 찰나 이번 학기에는 이 친구가 한국이 좋아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국도 다 도와주었고 이번 추석에는 저의 멘토를 집으로 초대해 전통음식 및 금오산구경도 시켜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리투아니아에서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었듯이 저 역시 이 친구가 한국에서의 생활이 소중해 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전공	사실 저는 전공지식을 다른 나라에서도 배워보며 분야를 넓혀 가고 싶어서 지원을 했었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에선 저와 비슷한 전공도 없었고 신청하려 했던 전공 비슷한 수업이 폐강을 해서 아쉽게도 전공 관련 된 수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막 학기에 (4학년1학기) 갔던 거여서 전공 관련 수업은 이미 다 이수를 하고 돌아와서 남은 학교생활을 하며 무난하게 채울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흥미로운 과목이나 평소에 외국가면 들어보고 싶었던 수업 위주로 들어서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수업 스케줄	원래 아침활동을 좋아해서 대부분 오전 수업을 위주로 수업신청을 했었고, 월요일에는 운동과목을 넣어 한 주를 뿌듯하게 시작 하였습니다. 수업은 보통 3시에 끝이 나서 개인 공부나 여가 활동을 보냈습니다.

학생할인 관련	학생할인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ISIC카드를 보여주면 일부 주류점이나 식당, 버스카드할인이 되었습니다.
ISIC카드 활용	ISIC카드는 국제 학생증으로, 학생이거나 박물관 입장 등 할인 혜택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거주하던 리투아니아보다 유럽여행을 할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영어공부	단어책이나 문법책등을 따로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어학연수 당시 책을 챙겨갔었으나 간단한 단어장이나 살펴보았는지 따로 공부를 하지는 않게 되어 가져가지 않았는데, 영어공부를 책보고 혼자서 하는 것보다 영어대화가 능숙한 외국인친구들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것이 회화에도 도움이 되고 자연스럽게 능률이 빠르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공부를 한 것이 있다면, 미국 영화를 다운받아 갔었는데 그 영화를 주에 한번꼴로 보고 그 영화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익혀 친구들과 만났을 때 활용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문장을 제 것으로 터득했습니다. 또한 제 친구 중 한 친구는 제가 영어문장이 막히거나 틀렸을 경우 고쳐주었는데, 그 때마다 메모도 해가며 저의 부족한 점을 바로바로 고쳐나갔습니다.
여행	교환학생생활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유럽국은 내에서 여행할 수 있는 교통이나 시설이 매우 잘되어있어 주변국 여행도 항상 꿈꿔왔었습니다. 교환학생을 하는 당시에는 ESN에서 주최하는 리투아니아의 다른 도시, 라트비아, 러시아 여행을 갔었고 공휴일이나 연휴가 길었던 날에는 시험스케줄을 고려해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을 다녀왔습니다. 교환학생이 끝나고는 약 10개국을 여행했고 돌아와서는 리투아니아 친구들과 리투아니아 근교 여행도 같이 하면서 현지인 친구들과 한 마지막 추억여행도 매우 뜻 깊었습니다.
교통	리투아니아는 비교적 작은 도시여서 버스나 기차로도 충분히 다른 도시에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버스이용은 제가 사는 지역인 구미와 비슷하게 한번 탈 경우 1유로였으며, NIGHT버스는 새벽 3시까지 다녀서 밤에도 이동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이어서 ISIC카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한 달 교통비 7유로 정도면 장소에 구매 받지않고 마음껏 버스를 이용 가능했습니다.
날씨	날씨는 비정상이 정상인 날씨라고 볼릴 만큼 거의 우중충 했습니다. 동유럽 중에서도 북쪽에 속해 추운나라인 만큼 겨울이 길어 약 11월부터 4월까지의 춥습니다. 그러다가 6-7월이 되면 잘 보지 못하던 해를 볼 수 있는데 그때 리투아니아에 폭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예뻐나! 하며 떠나기 싫을 만큼 너무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해외인턴	해당 되지 않음.
추신	사실 막 학기에 신청을 했었을 당시에 여태 쌓아온 학업이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고민도 많이 하며 망설이기도 했었으나, 대학생활 중 가장 하고 싶었던 것중 하나인 교환학생이어서 후회는 하지 말자. 하며 신청을 했었는데 운이 좋게 선발이 되고 흘러가는 생활에 맞게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데도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도 같이 지내려고 노력을 한 탓에 저는 각 나라마다 두 명 이상 정도 되는 저만의 친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날 때 저 하나 때문에 운 친구들을 보며 내가 저 친구들에게도 그 정도로 소

	중했구나 하며 마음이 통한 것 같아 너무 고마웠지만 그 친구들이 있기에 저의 교환학생에서의 모든 기억이 더 값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와서는 서로 가끔은 영상통화도하며 반가워하고 페이스북으로도 연락을 지속하니 같이 있을 때처럼 마음대로 보지 못해 아쉽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 했던 추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소중한 따뜻한 기억입니다. 저와 친구가 되어주었던 모든 친구들에게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금오공과대학교 국제 교류원분들에게 모두 감사합니다..
보완점	저는 기대이상으로 잘 즐기고 왔기 때문에 보완점은 단 하나도 느끼지 않았습니다.